

2. AMF 창설 추진의 의미와 시사점

- (AMF 창설 제기) 최근 한일 양국의 정책 책임자들이 AMF의 창설을 재차 제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음
- (논의의 배경) 아시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각국이 지나치게 美달러화 의존형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 IMF의 처방에 대한 비판과 일본의 아시아에서의 입지 확보 필요성 등에 기인함
- (시사점) AMF가 창설되어 '最終貸付者(lender of last resort)'의 역할 및 위기 방지 기능이 수행된다면, 국내 대외신인도 제고, 효율적인 위기 해결 기능 수행 등과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가 남아 있게 되어 국가간 보완 장치가 필요함

□ AMF 창설 제기

- 일본 가고시마에서 열린 한일 각료간담회에 참석한 김종필 총리가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아시아통화기금(AMF · Asian Monetary Fund) 창설 추진을 제기하였음
 - 이미 일본은 미야자와 플랜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에 300억 달러를 제공하고, 아시아국 발행채권에 지급보증을 서겠다고 나섰으며, 중국도 홍콩특별행정구가 부담하는 10억 달러를 포함, 55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음
 - 일본은 3백억 달러를 기초로 '아시아통화기금 (AMF)' 같은 국제기구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음
 - 이와 병행하여 한-일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대한 양국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아시아 위기에 대한 해결사의 역할을 수행하려 하고 있음

□ 논의의 배경

- AMF 창설 논의의 배경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음
 - 유러화의 출범을 앞두고 달러화와 유러화로 대표되는 국제 통화 질서가 정착되면 엔화의 위상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일본의 위기감이 팽배하였음
 - 또한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이 아시아의 경제 구조가 지나치게 달러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있음. 즉 보유 통화의 다양화 혹은 안정적인 통화의 보유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켰다면 위기 방지 또는 위기의 정도를 약화시키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인식이 깊게 뿌리박혀 있음

- 또한 일부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IMF와 같은 기구가 아시아적 위기 극복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점차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음

□ 각국의 입장 및 향후 전망

- (일본) 일본은 아시아 위기에 대한 IMF의 대응조치가 미흡하다는 전제하에 지난해 엔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한 아시아통화펀드(AMF) 설립을 추진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경제력 지배를 확대하려 하고 있음
 - 일본은 '円의 국제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엔화를 중심으로 한 단일 통화 블록의 구축을 구상하고 있음
 - 현재 일본은 AMF의 설립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여 AMF 설립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국내 경제 악화와 펀드 설립에 대한 단기적인 재정 부담 때문임
 - 따라서 중국이나 한국의 적극적 설립 의지 표명이 향후 AMF의 창설에 관건이 될 것임
- (아시아 각국) 아시아 경제의 달러 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지역적 안정장치 구축을 원하고 있으나 일본의 궁극적인 의도인 엔 경제 블록화를 경계하고 있음
 - 일본의 경제 위기로 인한 엔화 가치의 불안정,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축소를 우려하는 중국의 견제, 일본의 과거사에 의한 불신과 의구심 등으로 엔 블록의 가능성은 당장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음
- (미국) 미국은 세계 3각 구도에서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축소와 일본의 위상이 비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나 최근 IMF에 대한 비판론이 대두되고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의존적 경제구조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면서 AMF창설에 대해 관망하는 입장으로 선화하였음
 - 97년말 일본의 AMF의 창설에 대해 미국은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음. 이는 IMF와 비슷한 기능을 지닌 펀드 설립의 실효성과 지속성에 대해 의구심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임

□ 우리의 입장

- (현실적 검토 필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정책적 공조 및 위기 발생시 적극적 원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AMF 창설을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위기 방지 역할로서의 AMF 추진) 그러나 현재까지 논의되는 AMF에 대한 구상에 비추어 볼 때, AMF가 아시아 국가들의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위기 발생 이후의 자금 공여 기관으로서의 AMF보다는 사전에 위기 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AMF의 기능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 (대외신인도 제고) 향후 AMF 창설이 可視化된다면, 위기발생에 대한 안정장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자금유입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효율적인 외환위기 해결 방안) AMF의 기능이 확대되어 사전 위기 방지를 위한 각국의 정책 조율 및 총체적인 위기 관리 기능이 부여된다면, 이는 아시아 위기로 인해 각국들은 위기 관리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사항임을 인식해야 함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 IMF의 구제금융이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민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각국에 위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AMF의 창설도 아시아 국가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중앙은행간의 통화 Swap이나 Repo 체결과 같이 급박한 위기상황시에 Back-up Facility 확충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음

(양 두 용 yangdy@hri.co.kr ☎724-4057, 양 성 수 yangs@hri.co.kr ☎724-4017)